

잠

유재선

## 제 1 장

## S#1. 집 - 침실 - 밤

드르렁 드르렁. 검은 화면 위로 누군가의 코골이가 들린다. 침대 위에 잠든 **만삭의 임산부 수진(30 대 중반)**이다. 그녀의 긴 생머리가 달빛에 반짝인다.

곧 잠에서 깨어 고개를 돌리면... 침대 옆자리가 비어있다. ‘응? 어디 갔지?’ 몸을 살짝 일으키는 수진, 그제야 침대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남편 **현수(40 대 초반)**를 발견한다. 현수, 살짝 열려있는 침실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기는 수진.

수진                      오빠?  
현수                      누가 들어왔어.

얼굴이 통통 부운 수진, 현수의 말이 접수되지 않은 듯 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뒤늦게 몸을 벌떡 일으킨다.

수진                      (속삭이며) 뭐!?

현수의 시선은 여전히 문에 고정돼 있다. 그의 팔을 붙잡는 수진.

수진                      (속삭이며) 어떡해??

대답하지 않는 현수, 다시 침대에 누워 버릴 뿐이다! 어리둥절한 수진. 현수는 곧 코까지 골기 시작한다.

‘아, 뭐야... 잠꼬대였구나...’ 상황 파악이 된 수진은 헛웃음이 나온다. 이때,

**쾅!**

화들짝 놀란 수진. 거실 쪽에서 들리는 소리다. 수진, 현수를 흔들어 깨우려고 한다.

수진                      (속삭이며) 오빠. 오빠!

현수, 반응이 없자,

수진                      (속삭이며) 야!!

## S#2. 거실 - 밤

수진, 문밖으로 고개를 내민다. 거실은 조용하다.

한구석에 충전 중인 **전동 드릴**을 집어 들고 주변을 천천히 스캔하는데...

**광!**

비명을 지르는 수진. 곧 정신을 차리면...

베란다 문이 바람에 닫히는 소리였다. 문과 문틀 사이에 **슬리퍼**가 끼어 있다.

수진, 몸을 숙여 슬리퍼를 빼낸다. 다른 한 짝을 찾아 두리번거리지만, 보이지 않는다.

곧 활짝 열린 베란다 창문을 닫는 수진. 이때,

**털썩!**

세제 한 봉지가 떨어진다. 움찔 놀라는 수진, 세탁기 쪽을 바라보면...

**강아지**가 세탁기 위에서 수진을 바라보고 있다!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혀를

할딱거리는 강아지. 수진은 짜증 섞인 웃음을 지으며 가슴을 쓸어 내린다.

수진

후추! 거기서 뭐 해?

수진, 강아지 후추(포메라니안)를 들어 올린다.

반가운듯 "멍!" 짓는 후추. 수진은 품속 강아지를 "췌!" 조용히 시킨다.

수진

(피곤) 더 자자...

### S#3. 침실 - 이어서

침실로 돌아오면, 나 몰라라 자는 현수가 그녀를 반긴다.

이를 가만히 바라보는 수진, 손바닥으로 현수의 방뎃이를 내리친다. 잠시 후,

**털썩.**

현수의 발에 걸려 있던 나머지 한 짝의 슬리퍼가 바닥에 떨어진다.

**타이틀: 잠**

### S#4. 집 - 침실 - 낮

날이 밝았다. 커튼을 활짝 여는 현수, 나갈 준비를 마친 듯 가방을 메고 있다.  
잠든 수진의 얼굴에 뽀뽀하는 현수.

현수 (입술을 볼에 댄 채) 일어나. (반응이 없자) 밥 먹어.

여전히 무반응이다. 포기하는 현수, 그녀의 귀에 속삭인다.

현수 (속삭인다) 다녀올게.

현수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못 가게끔 목을 감싸 안는 수진.

수진 (잠이 덜 깬 채) 못 가.

#### S#5. 거실 - 낮

아늑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거실. 현수는 이미 떠난 듯하고, 수진만 허겁지겁 출근 준비 중이다. 수진이 준비하는 동안, 차례대로 등장하는 거실 인서트 샷들.

인서트 1: 현수가 차린 아침 밥상이 보인다. 이를 이미 먹어치운 듯한 수진. 국그릇 안에는 꼬리반골이 수복하다.

인서트 2: 갓 물을 준 듯 물방울이 맺힌 베란다의 식물들.  
예쁘고 아기자기하다.

인서트 3: 수진과 현수의 결혼사진. 소파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강아지 후추가 헛바닥을 내밀고 있다.

인서트 4: 이번에는 바닥에 앉아 헛바닥을 내밀고 있는 실제 후추가  
보인다. 고개가 이리저리 돌아가는 후추, 출근 준비 중인  
수진을 바라보는 듯하다.

인서트 5: 거실 구석에는 조립이 덜 된 아기침대가 보인다.  
(침대 한가운데에는 충전 중인 전동 드릴이 놓여있다.)

인서트 6: 선반에는 “**동평 연극상: 연기상 오현수**”라고 적힌 트로피가  
놓여 있다. 그 옆에는 현수의 극단 시절, 그리고 드라마 및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한 모습들이 액자사진으로 담겨 있다.

떠나기 전에 탁상 달력을 확인하는 수진. 달력은 정기검진, 출산 및 산모 교실 등의 일정으로 가득하다.

벽에는 촌스러운 나무 팻말이 걸려 있다.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 할 문제는 없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빼뚫어진 팻말을 바로잡는 수진.

이렇게 준비를 마친 수진은 신발을 대충 신고,

수진                      후추!

후추의 머리에 뽀뽀한다.

수진                      집 잘 지켜.

수진, 현관문을 활짝 열면,

#### S#6. 복도 계단 - 낮

문은 밖에 서 있던 여성을 있는 힘껏 가격한다! 기겁하는 수진, 여성을 살핀다.

시간 경과. 콧속에 휴지를 꽂아 넣는 여성, 아래층 이웃 민정(40 대 초반)이다. 수진에게 마카롱 세트를 건네는 민정.

민정                      별건 아니지만, 이거... 아래층에 새로 이사 왔어요.  
수진                      (찢찢매며) 아아! 너무 별건데요!? 진짜 맛있겠다!

민정, 아직도 얼얼한 듯 코를 움켜쥐고 있다. 무안할 따름인 수진이지만... 늦었는지 핸드폰 시계를 힐끔힐끔 바라본다. 곧 민정에게 꾸벅 인사하며,

수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 내려가자는 손짓을 하자,

민정                      근데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웬만해선 이런 애길 안 하는데...  
수진                      네?  
민정                      우리 아들이 잠을 깊게 못 자요. 잠이 얕은데... 새벽만 되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참다참다 일주일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한 바퀴를 도니까 도저히... 어쩔

수진                      때는 비명 소리도 들리고...  
비명?

어리둥절한 수진.

수진                      (깨달은 듯) 아, 어제! 그건 제가- (웃음) 죄송해요. 그건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민정                      (미소를 지으며)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수진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 S#7. 회사 - 회의실 - 저녁

커다란 회의실. 수진, PPT 발표 중이다.

수진(VO)                어제 딱 한 번 그랬어. 딱 한 번. 근데 뭐라는 줄 알아?

#### S#8. 회사 - 사무실 - 저녁

발표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 수진, 밝은 분위기 속에서 팀원들과 웃고 떠든다.

수진(VO)                (민정 흉내를 내며) “일주일 내내 새벽만 되면 쿵쾅거려서요~”  
응? “일주일 내내”래.

#### S#9. 차량 - 정차 중 (회사 건물 앞) - 밤

회사 건물 앞에 차를 정차 해놓은 현수, 수진과 통화 중이다. 스피커 모드로 들리는 수진의 목소리.

수진(OS)                월화수목금토일 한 바퀴 돌았대.  
현수                      하여튼 한국 사람들... 꼭 그렇게... 살을 붙여.

현수, 건물 밖으로 나온 수진을 발견한다.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드는 현수, 조수석에 놓인 배달 음식을 뒷좌석에 옮겨놓고, 잔잔한 태교 음악을 튼다. 곧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는 수진, 현수를 있는 힘껏 껴안는다. 장난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현수.

S#10. 차량 - 이동 중 (퇴근길) - 밤

운전 중인 현수, 문득 깨달은 듯,

현수                    잠깐... 그럼 아래층 할아버지는 이사 간 거야? 이제 없어?  
수진                    이제 없어.

입이 딱 벌어지는 현수.

현수                    어쩐지... 조용하다 했다. (생각에 잠기며) 할아버지 진짜...  
수진                    진짜...

현수, 고개를 가로짓는다.

현수                    (노인 목소리로)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가 봐. 밤마다 아주  
                             난리도 아니야."  
수진                    (질색하며) 아우, 하지 마.  
현수                    (노인 목소리로) "침대가 들썩, 들썩. 잠을 못 자!"

수진, 그만하라는 듯, 현수의 팔을 때린다.

수진                    새로 온 여자도 만만치 않아.

수진, 손에 들고 있는 마카롱 세트를 바라본다.

수진                    마카롱 이거 뜯지도 않았어. 인정해버리는 것 같아서.

수진, 씹씹거리다가...

수진                    승질나서 먹어야겠어.

포장지를 부악부악 뜯는 수진, 마카롱 하나를 꺼내 먹어본다. 조용한 차 안.

현수                    (수진을 보며) 맛있어?

한동안 대답하지 않는 수진.

수진                    (우물우물) 괜찮아.



현수, 다시 운전엔 집중하면...

수진 (우물우물) 아무튼 다 오빠 때문이야! 이상한 잠꼬대만  
안했어도...

### S#11. 집 - 거실 - 밤

현수 “누가 들어왔어?”

소파에 앉은 현수, 수진, 후추. 빔프로젝터로 드라마를 감상하고 있다. 수진은 배 위에  
올려놓은 마카롱 세트를 마무리하고 있다. 커피 테이블에는 현수의 맥주 캔과  
냉동식품이 보인다. 두 사람, 대화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드라마에 고정돼 있다.

현수 누가 들어와?  
수진 (답답하다) 내가 어떻게 알아? 오빠가 그랬다고! 한밤중에!  
(현수 흉내를 내며) “누가 들어왔어,” 이러는데, 엄청 태연해.  
다시 자 버려, 그냥!

수진, 갑자기 현수를 무섭게 쏘아본다.

수진 어떻게 아내를, 응? 홀로 사지에 내보낼 수 있어?

호르몬 변화의 탓일까, 이제는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수진.

수진 (울면서) 임신해서 하마로 변했다고...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거야.

현수 아니야, 무슨 소리야!

현수, 수진의 감정 기복이 익숙한 듯 그녀를 열심히 달랜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듯,

현수 “누가 들어왔어!” 그거 대사였어, 대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수, 두리번거리며,

현수 대본을 어디에 뒀지?

대본을 찾고 다시 자리에 앉는 현수.

현수 (대본을 펼치며) 자면서도 막... 연기 중이었나 봐, 꿈에서!

현수, 대사를 열심히 찾는데...

잠시 후, 수진은 알아서 눈물을 뚝 그친다.

수진 어?

현수, 수진의 시선을 따라 화면을 바라보면...

드라마에 짧게 등장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한다.

수진 나왔다, 나왔다.

숨죽이며 드라마를 감상하는 두 사람. 수진은 단역인 현수가 등장할 때마다 “저그다!”며 화면을 가리킨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다.

## S#12. 침실 - 밤

침대에 앉은 수진, 산모일기를 작성하며 하루를 마무리 중이다. 현수는 이미 잠들었다. 내일 촬영 분량인 듯한 대본을 얼굴에 덮은 채, 코를 골고 있다. 대본을 치워주는 수진, 무심코 펼쳐진 페이지를 살피면... "경호원" 역할의 대사가 전부 표시돼 있다.

대사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가 눈에 띈다. 정말 그런 대사가 있었나 보다.

피식 웃으며 대본을 덮는 수진, 잠든 현수의 얼굴을 바라본다.

습관인 듯 그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수진, 자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을 걸어본다.

수진 (귓속말) 오빠... 자?

현수 (잠결에) 응.

수진 나 이렇게 하마처럼 살찌도... 그래도 좋아?

현수 응.

수진 (씩 웃으며) 왜? 촬영장 가면 예쁜 배우들 많을 거 아냐, 그치?

현수 응.

표정이 굳는 수진, 현수의 얼굴을 향해 폴스윙으로 손바닥을 휘두르는데!

마지막 순간에 현수의 볼을 가볍게 툅 건들 뿐이다.

잠시 후, 볼을 긁기 시작하는 현수.

수진 가려워?

계속해서 얼굴을 붉는 현수...

보고 있기 불편할 정도로 오래 붉는다. 당황한 수진은 현수의 손을 치우고 볼을 감싼다.

수진                      자.

현수의 볼을 뉘주는 수진. 잠시 후, 그는 얼굴을 또 붉기 시작한다.

수진                      아이 참...

수진, 다시 한 번 현수의 손을 붙잡는다.

곧 힘이 서서히 풀리는 현수의 손. 이제는 정말 잠잠해진 듯하다. 그제야 손을 뉘주는 수진, 노트북을 바닥에 내려놓고 몸을 눕힌다. 침대 옆 스탠드를 끄면, 어두워지는 침실.

### S#13. 침실 - 새벽

현수의 핸드폰 모닝콜이 울린다. 어두운 침실을 밝게 비추는 핸드폰. 하지만 현수는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 되려 잠에서 깬 수진이 현수를 흔든다. 반응이 없자, 침대 옆 스탠드를 켜는 수진.

수진                      (잠이 덜 깬다) 오빠, 일어나. 촬영.

여전히 깬 생각을 안 하는 현수. 수진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세운다.

현수를 본격적으로 깨워보려는 수진,

순간 몸이 경직된다.

현수의 얼굴은 손톱으로 긁은, 아니 손톱으로 “파낸” 상처로 피범벅이 돼 있고, 손톱은 시뻘건 피로 물 들어 있다. 말문이 막힌 수진, 현수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려는 찰나...

고개를 번쩍 들어 올리는 현수! 수진, 깜짝 놀라 짧은 비명을 지른다. 비몽사몽의 현수, 공포에 질린 수진을 바라보며,

현수                      왜!?

하지만 수진은 말이 안 떨어진다. 현수, 일단 시끄러운 모닝콜을 힘겹게 끈다.

한숨을 쉬며 마른 세수를 하는 현수. 수진, 아차 싶어 뒤늦게 손을 빨지만, 이미 늦었다.  
반 박자 후,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현수. 수진도 덩달아 비명을 지른다.

#### S#14. 거실 - 새벽

소파에 앉은 현수. 올상인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현수의 얼굴에 (연고)약을 바른다.  
수진, 상처 부위에 약을 최대한 살살 발라보지만, 현수는 따가운지 얼굴을 내뻐다.  
이에 덩달아 움찔하는 수진.

수진                   (약을 바르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수진, 약을 다 바르면, 한 발자국 물러나 현수를 바라본다. 연고가 딱칠 된 얼굴이다.  
정작 현수는 바쁜 듯 벽시계를 확인한다.

현수                   (말하기 불편한 듯) 티 나?

이때, 덧바른 연고 위로 핏방울이 스며 나온다! 기겁하는 수진.

수진                   (떼를 쓰며) 오빠! 이거 병원 가야 돼,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제발 제발 제발.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 현수,

현수                   늦었어, 늦었어.

수진과 뽀뽀를 하려고 하지만, 생각을 바꾼 듯,  
“에어 뽀뽀”를 한다. 고개를 숙이는 현수, 이번에는 수진의 배를 향해 뽀뽀를 날린다.

현수                   (말하기 불편한 듯) 연락할게!

서둘러 신발을 신는 현수,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수진                   오빠! 잠깐 잠깐!

문틈 사이로 엄지 척을 날리고 현관문을 닫는 현수. 진짜 가버렸다.  
수진은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곧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돌아가는 수진,

흠칫 멈춘다. '음?' 발 밑을 내려다보면,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을 밟았다.

수진, 주위를 둘러보면...  
핏방울이 의외로 많이, 그리고 넓게 흩어져 있다. 이때,

**깡깡.**

침실 쪽에서 들리는 강아지 후추의 목소리다.

### S#15. 침실 - 이어서

침실로 돌아온 수진, 침대 밑을 살피기 위해 무릎을 굽히면...

바닥에 커다란 핏자국을 발견한다! 핏자국을 만져보는 수진, 얼굴(옆면)이 바닥에  
눌린 듯한 모양이다.

이때, 다시 한 번 들리는 깡깡 소리. 수진, 침대 밑을 보기 위해 힘겹게 옆으로 눕는다.  
침대 끝에는 겁에 질린 후추가 몸을 떨고 있다.

수진                      후추야! 왜 그래, 거기서!

후추를 향해 손을 뻗는 수진.

수진                      얼른 나와!

수진의 손은 침대 아래 가려졌던 또 다른 핏자국에 닿는다. 손자국이다.

수진, 본인도 모르게 얼굴 자국에 얼굴을, 손자국에 손을 갖다 대면, 강아지 후추를 향해  
손을 뻗는 모양새가 연출된다. 몸을 덜덜 떠는 후추.

### S#16. 회사 - 사무실 - 낮

초조한 듯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수진, 잠시 업무를 멈추고 인터넷 창을 연다.  
네이버에 "자면서 얼굴을 긁어요"라고 검색해본다. 지식인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일 수도 있다며, 수면클리닉을 방문해보라는 조언이 보인다.  
이에 "수면클리닉"을 검색해보는 수진.

### S#17. 집 - 거실 - 밤

어두운 거실. 퇴근한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센서 등이 켜지면...

누군가가 소파에 앉아 있다! 수진, 움찔 놀라며 불을 켜다.  
눈부서하는 현수, 거즈 붕대로 얼굴을 덮은 채 강아지 후추를 안고 있다.

수진                      왜 불도 안 키고 그러고 있어!

현수, 수진에게 고개를 돌려 억지로나마 미소를 짓는다.  
소파에 앉아 현수를 꼬옥 안아주는 수진, 곧 현수의 얼굴을 살핀다.

수진                      아니, 이 정도도 메이크업으로 커버 못해?

현수의 거즈를 살짝 들춰보는 수진, 인상을 찡그리며 도로 덮는다.

수진                      상처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걸 못 참고... 단칼에  
그렇게 배역을 없애냐...

현수, 수진의 배 위에 손을 올린다.

현수                      이제 그만 둘래.

수진                      뭘?

현수, 쇼핑백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낸다. 공인중개사 문제집이다.

현수                      한 번 쓱 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구.

어리둥절한 수진, 곧 경악하며 현수의 손에서 문제집을 가로챈다.

수진                      오빠! 바로 잘 되는 게 어딴어?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돼!

현수, 이런 반응을 예상한 듯 반문하려고 하자...

수진 (목소리를 깔며) 내 말 잘 들어. 나는 오빠만큼 연기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

현수 아우 하지 마.

수진 오빠는 무조건 성공해. 그리고 개네들? 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돼 있다구.

피식 웃는 현수, 수진의 손에서 문제집을 낚아채려고 하지만, 수진이 더 빠르다.

수진 아, 진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는 수진, 거실 벽에 걸어놓은 팻말을 땅!땅! 친다.  
팻말은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 할 문제는 없다"라고 새겨져 있다.

수진 응? 이 마음가짐만 유지하면 걱정할게 없어.

현수, 같은 말을 백 번은 들었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는다. 수진, 다시 소파에 앉으면,

수진 알았어, 몰랐어? (대답이 없자) 알았어, 몰랐어?

대답하지 않는 현수, 다시 쇼핑백을 뒤적거린다.

현수 이것도 있어.

크리스피 크림 상자를 꺼내는 현수. 수진, 더 크게 놀라며 상자를 건네 받는다.

#### S#18. 침실 - 밤

책상에 앉아 업무를 마무리 중인 수진, 현수가 사준 도넛을 먹는다. 잠시 작업을 멈추고 뒤돌아 보면, 현수가 침대에 굴아떨어져 있다. 거즈로 뒤덮인 현수의 얼굴.  
수진의 시선은 현수의 손으로 이동한다. 이불 위에 얇전히 놓여 있는 손...

곧 손가락 한 개가 까딱인다. 생각에 잠기는 수진.

#### S#19. 부엌 - 밤

부엌 불을 켜는 수진, 주위를 둘러본다. 좋은 생각이 난 듯, 서랍장을 열면...  
오븐 미트가 보인다.

## S#20. 침실 - 밤

현수의 양손에 오븐 미트를 끼워주는 수진, 코를 고는 현수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시간 경과. 수진, 현수의 코 고는 소리를 백색 소음으로 여기며 일에 열중하는데...

곧 코 고는 소리가 멈춘다. ‘응?’ 수진, 뒤돌아보면,

현수는 어느새 수진 뒤에 서 있다! 화들짝 놀라는 수진, 인쇄물도, 마시던 음료도 바닥에 쏟는다.

현수,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나간다. 이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수진.

## S#21. 거실 - 밤

수진, 뒤늦게 거실로 따라 나오면, 강아지 후추가 냉장고를 향해 짖고 있다.

현수, 냉장고 속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는 중이다! 오븐 미트를 낀 채, 생고기를 물어뜯는다. 날달걀도 껍질째 와그작 씹어 먹는다. 경악하는 수진, 현수가 생선을 깨물어 먹자, 이를 뜯어말리려고 한다. 하지만 현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생선의 머리를 베어 문다. 충격적인 비주얼에 헛구역질하는 수진.

현수, 이번에는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마시기 시작한다. 고개를 꺾고 물줄기에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이 마치 짐승과도 같다. 온몸이 얼어붙는 수진.

물을 다 마신 현수는 침실로 돌아가는데... 금세 발길을 멈춘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짖고 있는 후추를 바라본다. 현수의 부담스러운 시선에 짖기를 멈추는 후추, 현수가 다가오자... 줄행랑친다!

그제야 침실로 돌아가 문을 닫는 현수. 수진은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수진, 엉망이 된 냉장고를 정리해야 할지, 현수에게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현수를 확인하러 가는데...

## S#22. 침실 - 이어서



침실로 돌아오면... 창문을 여는 현수, 난간 밖으로 몸을 기대다!

수진 (현수에게 다가가며) 오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현수, 아래로 서서히 기울면서 다리가 위로 뜨기 시작한다. 창문 밖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비명을 지르는 수진, 현수의 손을 붙잡고 당겨 올려보지만,  
오븐 미트가 벗겨지면서 손을 놓친다!

간신히 현수의 바지 끝을 붙잡는 수진, 현수를 방 안으로 당겨 올린다.

침실 바닥에 안전하게 안착하는 두 사람. 수진은 가쁜 숨을 몰아쉰다.

현수, 수진의 속도 모르고 그제야 잠에서 깬다. 여전히 호흡이 진정되지 않는 수진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본다. 그런 수진의 모습에 놀라는 현수,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싼다.

현수 뭐야 뭐야? 왜 그래?

수진 뛰어내리려고 한 거야?

그제야 울먹거리기 시작하는 수진. 끝내 울음이 터진다.

수진 (오열하며)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현수는 아직도 어리둥절하다.

CUT TO:

시간 경과. 사태가 진정된 듯하다. 여전히 침실 바닥에 앉아 있는 수진과 현수.  
수진은 현수가 돌려준 듯한 이불을 덮고 있고, 현수의 허리를 꽉 안고 있다.

현수 물 갖다 줄까?

지칠 대로 지친 수진,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막상 현수가 일어나려고 하니, 기겁하며 그를 붙잡는다.

수진 어디가? 가지마!

수진의 눈동자에서 불안이 느껴지는 현수, 다시 바닥에 자리 잡는다.

현수                      아냐 아냐, 아무 데도 안 가.

그렇게 침실 바닥에 앉아 있는 두 사람.

현수, 곧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현수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수진, 대답하지 않는다.

현수                      진짜??

수진                      내일 당장 병원 가봐.

현수,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창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그의 가슴팍을 때리는 수진. 굉장히 아파하는 현수.

수진                      들었어?

현수                      들었어, 들었어.

수진                      병원 갈 거야?

현수                      병원 갈게.

잠시 정적.

현수                      무슨 병원을 가지?

### S#23. 집 - 침실 - 낮

어느새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됐다. 수진, 철창을 잡아당겨 본다. 견고하다.

창문 밖을 바라보는 수진. 집(5층)에서 1층 주차장까지는 거리가 제법 멀다.

수진, 순간 전날 밤 일이 생각난 듯, 두 눈을 질끈 감는다.

### S#24. 거실 - 낮

거실로 나오는 수진. 설치 기사 두 명이 모든 창문에 철창을 설치하는 중이다.

거실에는 수진모(60 대)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 곧 수진모도 똑같이 철창을 잡아당겨 본다.

수진                      아유 엄마!

엄마를 소파에 앉히는 수진.

수진                      정신없어. 앉아, 쫘.  
수진모                    (질색하며) 웬일이라니, 정말?  
수진                      이미 병원이야 지금. 하루종일 검사받는데.  
수진모                    그러지 말고...

수진모, 가방에서 명함을 슬쩍 꺼낸다.

수진모                    ...이분 한 번 연락드려봐.

반짝거리는 황금색 명함을 건네 받는 수진.

수진                      (명함을 읽는다) “용월당... 해궁할매.” 용월당 해궁할매?

어리둥절한 수진, 곧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짓는다.

수진                      무당!?  
수진모                    웃고 자빠지고 할 일이 아니야.

다시 가방을 뒤지는 수진모, 수진에게 또 다른 뭔가를 건넨다.

수진모                    침대 밑에 붙여 놓으래.

이를 펼쳐보는 수진, 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소파에 내팽개친다.

수진모, 구겨진 부적을 보고 경악한다.

수진모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커피 테이블에 부적을 내려놓고 열심히 펴주는 수진모,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에 놓인 굴 바구니를 쓰러뜨린다. 수진은 그런 엄마의 모습이 질린 듯, 바닥에 쏟아진 굴을 주워담을 뿐이다. 무안한 지 굴 한 개를 까며,

수진                      아유, 엄마는 이런데 돈 좀 쓰지 마! 이런 걸로 덕 본 적도

없으면서...

수진모 (부적을 펴며) 없긴 왜 없어?

수진 뭐 있는데? 집값이 올라갔어, 아빠가 돌아왔어?

수진모 (부적을 펴며)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정말.

수진, 약간은 미안한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본다.

수진 (굴을 먹으며) 뭣 하러 먼 길 오나 했다.

#### S#25. 수면 클리닉 - 수면다원검사실 - 밤

환자복을 입은 현수, 얼굴과 머리에 각종 센서가 부착된 채 침대에 누워 있다.  
느닷없이 핸드폰을 들어 올려 셀카를 찍으려는 현수.

현수 들어와. (...) 아 들어와~

수진, 마지못해 셀카 화면 안으로 몸을 기운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지만,  
손으로는 또 브이를 만든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면,

간호사 이제 환자분 주무실 준비 할게요.

수진 아 네네!

수진, 현수의 이마에 뽀뽀하고 분주하게 퇴장한다.

#### S#26. 수면 클리닉 - 상담실 - 낮

벽에는 활짝 웃는 가족의 그림이 보이고, 그 밑에는 "스마일 수면 클리닉"이라고  
적혀 있다. 수진, 병원 포스터를 보며 덩달아 열은 미소를 지어본다.

의사(남, 40대)와 마주 앉은 현수와 수진. 여전히 환자복을 입은 현수는 잠에서  
막 깬 모습이다. 컴퓨터에는 시간별 뇌파를 기록한 "수면다원검사기록"이 띄워져 있다.

의사 뇌파가 이런 모양인 건 "렘수면행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진,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현수의 손을 짹 쥔다.

의사                    보통 신경세포가 화학적 불균형 상태일 때 발생하는데-  
현수                    아, 불균형...  
의사                    (미소) 말은 거창하지만, 생각보다 흔합니다. 잠꼬대를 할 수도  
있고... 꿈에서 하는 행동, 예를 들어... (현수를 가리키며)  
얼굴을 붉는다든지, 팔다리를 휘두른다든지... 더 나아가면...

의사, 서랍 속에서 안내 책자를 꺼내 현수에게 건넨다. 책자를 뺏어 넘겨보는 수진.  
책자 속에는 렘수면행동장애의 증상이 일러스트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잠결에 얼굴을 붉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 심지어 방바닥에 소변을 보는 사람도 보인다.

의사                    수면 중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어떨 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 먹기도 하고-

한 장 더 넘기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먹는 사람이 그려져 있다. 화들짝 놀라는 수진,  
의사를 올려다본다.

수진                    똑같아요. (현수에게 고개를 돌리며) 완전.

현수,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수진                    고칠 수 있는 건가요? 렘수면...  
의사                    네.

의사, 수진이 들고 있는 안내 책자를 몇 장 더 넘긴다. 손가락으로 책자를 두드린다.  
"처/료"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는 페이지다.

의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 S#27. 집 - 거실 - 낮 / 밤

의사의 보이스오버와 함께 진행되는 소소한 몽타주.

의사(VO)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집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여나 수면 중에 걸어 다녀도... 안 다치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현수, 책상과 서랍에 폭신한 모서리 보호대를 붙인다.

한편, 부엌의 칼과 가위를 전부 바구니에 담는 수진, 잠시 고민하더니 곧 포크도 담는다.  
이를 싱크대 밑 서랍장에 넣어두고, 자물쇠로 손잡이를 걸어 잠근다.

CUT TO:

의사(VO)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말이죠.

저녁을 차리는 현수. 수진은 안내 책자의 내용을 A4 용지에 옮겨 적는 중이다.  
현수, 수진 어깨너머로 A4 용지를 쓰윽 훑어보면...

현수                              술 금지!?

경악하는 현수를 뒤로 하고 A4 용지를 거실 벽에 붙이는 수진.  
“렘수면행동장애, 뿌리를 뽑자!”라고 적혀있다. “술 금지,” “밤 10 시에 취침” 등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양한 지침이 길게 나열돼 있다.

CUT TO:

의사(VO)                      일단, 알코올은 심각한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현수, 냉장고에서 캔 맥주와 소주병을 전부 꺼낸다. 맥주를 한 캔 따는 현수.  
수진은 맥주 캔을 건네 받아 싱크대에 쏟아 붓는다.

수진                              이건 진작에 했어야 해. 나도 못 마시고 있는데, 어디 혼자서...

CUT TO:

의사(VO)                      그리고 가능하면 밤 10 시 전에는 주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수면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적어져요.

거실을 서성이며 통화 중인 현수. 소파에 앉은 수진은 “X” 표시로 가득한 탁상 달력을  
보고 있다.

현수                              네, 조감독님. 5 일에 하는 야간 촬영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당분간 밤 촬영이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데, 혹시 낮으로 돌릴 수 있는지... (...)  
아... 그렇죠, 네. 아, 알죠 알죠...

통화 중인 현수, 애원의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지만, 수진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다.

현수 (눈을 질끈 감으며) 그럼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조감독님.

한숨을 쉬는 현수, 달력을 바라본다. 수진은 곧 펜을 꺼내 “X” 표시를 한 개 더 추가한다.

CUT TO:

의사(VO) 그 외에는... 침실을 어둡게, 그리고 덥지 않게 유지하면 좋고...  
자기 전에 화면을 안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침실 커튼을 치는 현수. 히터도 23 도로 맞춘다.

CUT TO:

의사(VO)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약을 복용하시는 거예요.  
(비밀을 이야기하듯) 보통 약 먹으면 다 나아요.

수진과 현수, 커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다. 후추도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탁상 위에는 흰색 약통이 놓여 있다. “트아미젠 0.5mg”이라고 적혀 있다. 수진, 약통에서  
약을 꺼내 현수에게 건네주면, 현수는 약을 입에 털어 넣고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의사(VO) 증상이 호전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안내 드린 대로만 하시면 어느새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게 약까지 다 먹었다. 현수와 수진은 말없이 서로 바라본다.  
서로 이상할 정도로 오랫동안 바라보는 두 사람. 난데없이 눈싸움 중인 걸까?  
현수, 수진의 눈에 바람을 불어넣자, 서로의 눈에 바람을 불어대며 킬킬거리는 두 사람.

## S#28. 침실 - 밤

현수, 침대에 눕는다. 옆에 누워 있는 수진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수진도 그런 현수에게  
엄지를 들어 올린다. 피식 웃는 현수, 한숨을 깊게 내쉬고 눈을 감는다. 침대 옆 스탠드를

끄는 수진. 침실이 어두워지면... 현수를 끌어안고 눈을 감는다.

### S#29. 집 - 침실 - 낮

아침 햇살에 눈을 뜨는 수진, 고개를 들면, 암전히 자고 있는 현수. 수진은 현수의 얼굴을 쓰윽 살핀다. 별 이상이 없는 듯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수진, 현수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 S#30. 거실 - 낮

잠이 덜 깬 채 거실로 나오는 수진. 조용하다. 루틴인 듯 탁상 달력을 확인하다가... 강아지 후추의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이동하는 수진.

수진                      (달력을 보며) 후추야.

갑자기 멈칫하는 수진, 발 밑을 보면,  
냉동식품 봉지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몇몇 봉지에서 새어 나온 액체가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후추의 짓일까?

수진                      (짜증) 아 후추! 너 어딴어!?

하지만 후추는 답이 없다.

널브러진 냉동식품 봉지들을 바라보는 수진. 봉지를 줍기 시작하면,  
하얀 털 뭉치가 딸려 올라온다!

섬뜩한 기분이 드는 수진, 곧 냉장고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천천히 냉장고 앞으로 다가가는 수진,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냉동고 문을 붙잡는다. 그리고 문을 열어본다.

온 몸이 굳는 수진.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는 듯하다가...  
곧 아연실색이 된다.

수진                      (목소리가 안 나온다) “후추야...”

비명을 지르는 수진, 고막이 터질 듯하다. 암전되는 화면.



## 제 2 장

### S#31. 산부인과 - 분만실 - 밤 (한 달 후)

다시 페이드인하면, 찌렁찌렁하게 들리는 비명 소리.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인 수진, 아기를 낳는 중이다!

### S#32. 산부인과 - 회복실 - 낮

햇살이 떨어지는 병실. 수진은 침대에 앉아 있고, 현수는 갓난아기 하윤을 안고 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수진과 현수.

### S#33. 산부인과 - 회복실 - 낮

병실을 방문한 수진모가 아기를 안아본다. 침대에 누워 있는 수진, 신경 쓰이는 듯,

수진                   머리를 받쳐요, 엄마. 머리 머리.  
수진모               (머리를 받치며) 참나, 누군 안 낳아 봤나? (아기를 보며)  
                              옳지. 옳지. 하윤아! 이름도 이쁘네!

CUT TO:

시간 경과. 모유 수유 중인 수진. 수진모는 옆에서 사과를 깎는다.

수진                   생각해보면 오빠 잘못도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수진모               (기가 차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야?  
                              도 닻니?  
수진                   죄도 아니야. 병을 미워해야지. 몽유"병."

수진, 한동안 하윤을 말없이 바라본다. 수진모의 사과 깎는 소리만 서걱서걱 들릴 뿐이다.

수진모               내가 알아봤는데... 이거 다 이혼 사유 된대.

고개를 갸우뚱하는 수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다가...  
곧 경악한 표정을 짓는다. 수진, 외계인을 쳐다보듯 엄마를 뺑히 바라본다.

수진                   무슨 말도 안되는-  
수진모               (말을 끊는다) 니가 행복해야지. 나도 니 애비 없이  
                              너 잘 키우고-

수진 (말을 끊는다) 치료받고 있어. 괜찮아질 거야.

수진모가 반문하려고 하자,

수진 아 걱정하지 마. 우리도 다 생각해봤어. 계획 다 세웠어.

정적이 흐른다. 여전히 기가 찬 듯, 고개를 가로짓는 수진.  
수진모는 그런 수진의 눈치를 살핀다. 곧 수진의 머리를 넘기며,

수진모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면 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

수진, 굳이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진모는 딸의 입에 사과 한 조각을 밀어 넣어준다. 끝내 피식 웃는 수진.

#### S#34. 수진모의 집 앞 - 낮

차량 안. 현수는 운전석에, 수진은 하운을 안고 뒷좌석에 앉아 있다. 두 사람, 밖에서 있는 수진모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곧 조심스럽게 출발하는 현수.

현수 집에 가자!

현수, 수진을 보며 웃는다. 미소를 짓는 수진, 곧 품속 하운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런 수진을 바라보는 현수, 말 없이 운전한다. 잠시 후, 수진에게 말을 건네 볼까 망설이다가... 이내 그만둔다.

#### S#35. 집 밖 (아파트 단지) - 낮

집 앞에 안전하게 도착한 현수, 시동을 끄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수진은 품속에서 잠든 하운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 이를 바라보는 현수.  
곧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 후, 수진에게 사진을 보여준다.

현수 "예스 고시원"이라고 있어. (사진을 넘기며) 며칠 전에 한 번  
가봤는데... 시설도 새 거고, 방 안에 화장실도 있고, 한 달에  
45 만 원. 여기서 5 분도 안 걸려. 괜찮지?

수진 (어리둥절) 뭐가 괜찮아?

잠시 정적.

현수                      당분간 밖에서 잘까?  
수진                      밖에 어디? (현수의 의도를 파악했다) 여기!?

수진, 현수를 빤히 바라본다.

수진                      (단호하게) 싫어.  
현수                      그러면 쉽게 해결 되잖아.

고개를 가로챈 수진.

수진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는 거야.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현수                      아니-  
수진                      (말을 끊으며) 그게 왜 쉬운 줄 알아? 포기해서 쉬운 거야.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 부부는.  
현수                      (웃으며) 이게 왜 포기야!?  
수진                      포기야.

현수의 핸드폰을 끄려는 수진, 손가락으로 액정을 마구 누른다.

### S#36. 집 - 거실 - 낮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진과 현수. 수진은 하얀을 안고 있고, 현수는 택배 상자를 잔뜩 들고 있다. 수진, 거실로 들어와 집을 스캔한다. 전보다 훨씬 행해진 공간. 조립식 아기침대도 완성되어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수진.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듯 고개를 끄덕인다.  
현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수진, 현수도 덩달아 미소를 짓는다.

수진, 곧 택배 상자 한 개를 뜯기 시작한다. 상자에서 작은 종을 꺼내는 수진.

CUT TO: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침실 문에 종을 설치하는 현수. 뒤에 서 있는 수진은 수면 클리닉 안내 책자를 살핀다.

수진                      “종소리는 보호자를 깨우는 용도입니다.”

현수, 시험 삼아 방문을 열어보면, 종이 딸랑딸랑 울린다.

수진                      “종이 울리면, 잠에서 깬 보호자는 환자를 침대로 천천히  
인도합니다.”

수진, 안내 책자의 지시대로 현수를 침실로 인도한다. 두 팔을 앞으로 뻗는 현수,  
좀비 흉내를 내며 침실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현수의 등짝을 때리는 수진.

### S#37. 침실 - 낮

현수, 갓 구입한 듯한 침낭을 침대 위에 짝 펼쳐 놓는다. 침낭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현수,  
온몸이 묶인 채 얼굴만 튀어나와 있다. 현수, 힘겹게 고개를 들어 수진에게 미소를 짓는다.  
김밥처럼 말린 남편을 바라보는 수진,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현수, 수진에게 옆에  
누워 보라는 듯 고갯짓을 한다. 미소를 띠는 수진, 하운을 아기침대 안에 눕힌 후,  
본인도 현수 옆에 눕는다. 피로가 쏟아지는 듯 열린 신음소리가 나온다.

현수                      좋아?

잠시 눈을 감는 수진,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평화롭게 누워 있는 세 식구.

이때, 창문 너머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린다.

수진, 창문 밖을 바라보면, 아래층 이웃 민정과 그녀의 아들 진혁(9)이 강아지를  
산책 시키고 있다. 의아한 표정으로 강아지를 바라보는 수진.

강아지는 죽은 후추를 빼 닮은 포메라니안이다.

### S#38. 집 밖 (아파트 단지) - 낮

아래층 이웃 민정과 진혁, 강아지를 산책 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 한가로운 풍경이다.

수진, 빌라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본다.

민정                      (수진을 발견하고) 어! 안녕하세요. (아들에게) 진혁아,  
인사 해야지?

핫바를 먹는 진혁, 수진이 누군지 모른다는 듯, 엄마를 멍하니 바라본다.

민정 (친절하게) 우리 윗집 이웃이야.

진혁 (핫바를 입에 문 채) 층간소음 커플?

화들짝 놀라는 민정, 애써 웃으며 진혁의 옆구리를 꼬집는다. 진혁, 소리를 지른다.

진혁 (뒤늦게 꾸벅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미소를 짓는 수진,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강아지에 있다. 한쪽 무릎을 굽혀 강아지에게 손등을 내미는 수진. 이름표를 만지작거리면, “앤드류”라고 적혀 있다.

민정 아! 우리도 입양했어요. 저희 애가 위층 강아지 예쁘다, 예쁘다 노래를 불러대서... 똑같은 포메로... (웃음)

느닷없이 화들짝 놀라는 민정, 두 손으로 수진의 배를 가리킨다.

민정 아기! 낳으셨구나!

수진은 민정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대꾸하지 않는다. 그런 수진이 의아한 민정.

민정 축하드려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말 없이 강아지를 쓰다듬는 수진. 드디어 민정 쪽으로 고개를 들어 올리면, 수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진 네?

### S#39. 집 - 거실 - 밤

어두운 거실. 강아지 후추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 더 이상 벽에 걸려있지 않다. 액자가 걸려 있던 자리에는 벽이 바랜 흔적이 선명하다.

결혼사진은 뒤집어진 채 베란다 한구석에 놓여 있으며, 그 옆에는 후추 관련 물건들이 상자 안에 정리돼 있다.

### S#40. 거실 - 밤

거실에 자리 잡은 수진과 하윤. 하윤은 아기침대에 잠들었고, 수진은 바닥에 이불을 깔아 놓았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하는 수진, 강아지 후추의 사진들을 보고 있다.

어느 한 사진에는 현수와 후추가 함께 잠들었다. 수진, 이를 멍하니 바라본다.

곧 부엌 냉장고에서 **위잉~**하는 소리가 들린다. 움찔하는 수진.

CUT TO:

시간 경과. 여전히 노트북을 놓지 않는 수진, 이제는 뉴스 기사와 블로그 게시글을 읽고 있다. 자세히 보면, 몽유병 환자들이 가족을 살해하는 내용의 글이다.

#### S#41. 침실 - 밤

침낭 속에 잠든 현수, 코를 골고 있다. 수진, 그런 현수를 말없이 바라본다.

곧 현수의 약통이 눈에 들어온다. 약통을 집어 드는 수진.

수진	오빠, 약 먹었어?
현수	(잠결에) 응.
수진	먹었어?

답이 없다. 머뭇거리는 수진. 약통에서 약을 한 알 꺼내 현수의 입안으로 쑤셔 넣는다. 입맛을 다시는 현수.

수진, 그런 현수를 뻔히 쳐다보는데...

여전히 불안한 듯, 약을 한 개 더 쑤셔 넣는다.

#### S#42. 거실 - 밤

수진, 이불 위에 놓고 눈을 감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세 몸을 일으킨다. 안절부절못하고 거실을 배회하는 수진, 아기침대 속에서 곤히 자는 하윤의 모습을 바라본다.

수진, 다시 이불 위에 누워 본다. 그래도 여전히 뒹척이고, 곧 몸을 일으킨다.

결국 아기침대 속에서 하운을 꺼내는 수진. 한 손으로는 하운을, 다른 한 손으로는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을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다. 화장실 문을 닫고 걸어 잠그는 수진.

잠시 후, 화장실 안에서 하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 S#43. 화장실 - 밤

욕조 안에 이불이 깔렸다. 하운을 안은 채 잠든 수진, 굉장히 불편해 보인다. 잠시 후,

**딸랑 딸랑.**

수진, 눈을 번쩍 뜬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다.

숨죽이며 화장실 문을 바라보는 수진. 긴 정적이 흐르면...

천천히 돌아가는 문 손잡이. 문이 열리지 않자,

**똑똑.**

수진

오빠?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는다.

**쿵! 쿵! 쿵!**

곧 문 두드리는 소리와 손잡이를 난폭하게 돌리는 소리가 들린다. 몸이 얼어붙는 수진.

**콰직!**

몸통으로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들린다. 기겁하는 수진. 하운은 울기 시작한다.

욕조 안에 눕는 수진, 하운을 껴안고 그녀를 쉬쉬 달랜다.

수진

(활짝 웃는 표정을 지으며 속삭인다) 여깁네! 엄마 여깁네!

**콰직! 콰직!**

수진, 눈을 질끈 감는다.

CUT TO:





이미크로렘은 훨씬 독한 약이어서...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넘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현수

아...

의사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보죠.

잠시 정적.

수진

혹시... “조금 더”가 얼마 더예요?

의사

이번 달까지는 계속 복용해보시고, 다음 달에 내원하셔서  
처방을 바꿀지 한 번-

수진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선생님. 제가 볼 땐...  
어제는 화장실에서 잤거든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수진.

수진

하라는 대로 전부 따랐는데-

다시 말문이 막히는 수진. 현수는 난감해하는 의사를 위해 억지 미소를 짓는다.

의사

답답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렘수면행동장애라는 게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한 분야여서-

수진

나아지기는커녕-

의사

그러니까... 증상이 언제 치료된다, 무조건 치료된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다만-

수진

(말을 끊고) 네?

의사

다만, 경험적으로 효과가 확실했던 처방을 해드리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수진

(말을 또 끊고) 그럼 평생 저럴 수도 있다고요?

잠시 정적.

의사

환자마다 격차가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꾸준히-

**퍽!**

수진, 쥐고 있던 빈 약통을 의사의 이마에 던진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현수는 의사를  
살핀다. 광기 어린 눈을 하는 수진.

#### S#46. 집 - 거실 - 낮

부엌 탁상 앞에 앉은 현수, "렘수면행동장애"와 관련된 책과 인쇄물을 탐독하는 중이다.

현수                   (조용히 읽는다) "수면유도제 계열과는 달리, 이미크로렘은 수면장애 요인을 직접 타겟팅한다."

논문을 두드리며 읽은 부분을 밑줄 치는 현수. 한편,

수진                   (혼잣말로) 돌팔이 새끼. 개새끼.

초조한 듯 손톱을 깨무는 수진은 거실을 정신없이 배회한다. (수진의 쿵쾅거리는 발소리에 아랫집 강아지도 열심히 짖어댄다.)

수진                   (큰 목소리로) 어떡해?

수진의 큰 목소리에 아기침대 속 하운이 울먹인다. 현수, 하운이 울까 봐 난감하다.

수진                   (더 큰 목소리로) 이제 어떡해!?

흠칫 놀라는 현수, 선뜻 대답하지 못하다가... 읽고 있던 전문서적을 들어 올린다.

현수                   수진아, 이거 봐봐. (읽는다) "수면보행증 환자의 경우, 이미크로렘의 치유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기 분명히 적혀 있지? 내가 볼 땐 이게 맞거든?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수진. 현수,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현수                   아무튼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찾을게.

수진, 제자리에 멈춘다. 그리고 현수를 뵈히 바라본다.

수진의 무반응이 무안한 듯 책을 내려놓는 현수.

#### S#47. 집 밖 (아파트 단지) - 낮

건물 뒤편에 홀로 서 있는 수진,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갓 사온 담뱃갑이다. 초조한 손으로 비닐 포장을 뜯고 담뱃갑을 여는데, 막상 담배를 꺼내지는 않는다.

잠시 후, 아래층 이웃 민정이 나타난다. 수진을 보며 놀라는 민정, 수진과 고개인사를 나눈다. 수진의 눈치를 살피는 민정은 곧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다. 한동안 말없이 담배를 피우는 민정.

민정                      힘들죠?

수진, 의아한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다가...

수진                      (웃음) 아. 너무 시끄럽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꾸벅)  
죄송합니다.

민정, 고개를 가로짓는다.

민정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잠시 정적.

민정                      그쪽을 보면, 5년 전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                      그래요?

민정                      네.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는 민정.

민정                      제 가장 큰 후회가 뭔지 아세요?

수진, 민정이 대답하기를 기다린다.

민정                      “왜 더 일찍 갈라서지 않았을까?” (웃음)

민정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수진.

민정                      결혼이 별거예요? 답이 안 보인다면 싶으면 때려쳐도 돼요.

수진, 민정의 말을 곱씹어보다가... 헛웃음이 나온다.

수진                      (고개를 들며) 아니-

하지만 민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민망한 듯, 말없이 프레임아웃 하는 수진.

#### S#48. 집 밖 (아파트 단지) - 밤

조용한 주차장. 차량이 뱅뱅하게 주차돼 있다.

곧 차량 문을 열고 탑승하는 현수. 문을 잠근 후, 차량 키를 뒷좌석에 던져버린다.  
운전석을 최대한 뒤로 젖히는 현수, 돌돌 말아온 침낭을 펼쳐 힘겹게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잘 준비를 마치고 눈을 감는데...

**똑똑.**

화들짝 놀라는 현수. 창문 밖을 바라보면, 하운을 안고 있는 수진이다.

수진                      (피곤한 듯) 아유- 얼른 들어와.

#### S#49. 집 - 거실 - 밤

현수, 전동 드릴로 침실 문에 설치된 종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물쇠 고리를 설치한다.  
고리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수진, 자물쇠를 테스트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당겨본다.

점점 더 격렬하게 문을 잡아당기는 수진. 현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수진, 손잡이를 과격하게 흔들지만, 견고하게 설치된 자물쇠 덕에 문은 열리지 않는다.

CUT TO:

침실 문턱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수진과 현수. 현수, (애처롭게) 손을 흔든다.  
미소를 지으며 덩달아 손을 들어 올리는 수진, 침실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근다.

현수(OS)                      아! 아직 양치 안 했는데...

피로가 극에 달한 수진은 침실 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질끈 감는다.

현수(OS)                      뽕이요.

잠시 정적. 어이가 없다는 듯 웃는 수진.

CUT TO:

베란다의 식물들은 어느새 시들어 있다.

수진, 벽에 걸린 나무 팻말을 바라본다.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 할 문제는 없다*”라고 쓰여있다. 이를 말없이 바라보는 수진.

그 옆에 붙여놓은 A4 용지를 바라본다. “*렘수면행동장애, 뿌리를 뽑자!*”라고 적혀 있는 종이에선 현수의 생활수칙이 나열됐다. (종이 여백에는 현수가 새로운 수칙을 잔뜩 추가 해놨다.)

수진, A4 용지를 벽에서 **좌악!** 찢어낸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수진.

#### S#50A. 집 밖 (아파트 단지) - 낮

고급 외제 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온다.

차에서 내리는 수진모와 **의문의 여성 (60 대)**.

#### S#50B. 집 - 거실/침실 - 낮

수진모와 여성이 입장하면, 두 사람을 맞이하는 수진과 현수.

수진모                   (수진에게) 인사드려. 저번에 말씀드린 보살님. 해궁할매.

                              (해궁할매에게) 이쪽은 우리 딸. 그리고 오 서방. 사위.

수진                     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미소를 짓는 **해궁할매**, 무속인이라고 하기엔 패션이 캐주얼하고 고급스럽다.

해궁할매               (수진에게) 잠깐 좀 돌아다닐게?

수진                     아, 네 네.

해궁할매, 의자에 코트를 걸어놓고, 명품 핸드백에서 향, 방울, 칼을 꺼내 부엌 탁상 위에 올려놓는다. 칼을 보며 놀라는 현수는 아기침대에서 하운을 들어 올린다.

고급 라이터로 향을 피우는 해궁할매.

해궁할매                      조금 시끄러울 거야.

해궁할매, 방울을 흔들며 거실을 돌아다닌다. 열려 있는 모든 커튼을 닫고,  
집을 구석구석 살핀다. 곧 침실 안으로 들어가면, 걸음걸이가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해궁할매                      귀신은 자는 사람한테 잘 붙어. 잠들면 영성이 약해지거든.  
그 틈을 타서 몸에 들어가는 거야, 야비하게.

커튼을 마저 닫는 해궁할매.  
갑자기 손에 쥔 방울을 의아하게 바라본다.

곧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방울! 방울은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해궁할매를  
침실 밖으로 끌고 나온다! 방울에 이끌려 거실로 나오는 해궁할매,

급하게 발길을 멈춘다! 현수 앞이다. 해궁할매, 현수를 뚫어지라 쳐다본다.  
그렇다고 눈을 바라보는 건 아니다. 해궁할매의 시선은 현수의 겨드랑이, 어깨 위,  
머리 위를 차례대로 훑는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현수.

현수의 정수리 쪽을 뻗히 바라보는 해궁할매는 곧 수진에게 고개를 돌린다.

해궁할매                      (수진에게) 남자 둘을 데리고 사네?  
수진                              네?  
해궁할매                      붙은 건 신랑한테 붙었는데, 데리고 온 사람은 그쪽이야.  
                                    아가씨를 따라왔어.  
수진                              누가요? (...) 귀신이에요?? (...) 왜요??

잠시 정적.

해궁할매                      왜긴 왜야, 젊고 예뻐서겠지.

못마땅하다는 듯 쫓쫓거리는 해궁할매.

해궁할매                      사람이나 귀신이나... 다 똑같아. 추해.

해궁할매, 현수의 턱을 붙잡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린다. 당황한 현수,  
수진 쪽을 바라보지만, 수진도 난감한 미소를 지을 뿐이다.

해궁할매

여기저기 조금 가렵지?

현수의 셔츠를 올려 배를 까보는 등, 옷을 정신없이 걷고 들어 올리는 해궁할매.  
현수는 품에 안긴 하운을 울리지 않으려고 애를 먹는다.

뒤척이는 하운, 끝내 울먹거리기 시작하자...

동작을 멈추는 해궁할매,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현수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다들 그런 해궁할매를 의아하게 바라보는데...

수진모

(뒤늦게) 저-

방울을 들어 하운의 얼굴 앞에 흔들어대는 해궁할매. 깜짝 놀란 현수는 아기를 감싸며  
뒷걸음친다. 다들 요란한 소음에 어쩔 줄 모르는데... 해궁할매는 현수의 정수리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방울을 정신없이 흔들며 댈 뿐이다.

시끄러운 소리에 하운이 울부짖기 시작하면, 방울소리를 멈추는 해궁할매,  
고개를 떨구고 조심스럽게 입을 떼다.

해궁할매

"개 짖는 소리 없이."

현수

네?

해궁할매

"아기 울음소리 없이." (...) "조용히 살고 싶다." (...)

"너랑만, 단둘이."

해궁할매, 수진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병찢 수진, 해궁할매를 뵈히 바라볼 뿐이다.

두 손가락으로 향을 끄는 해궁할매.

해궁할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수진, 대답하지 못한다.

해궁할매

제때 안 쫓아내면 진짜 그렇게 될 거야.

수진모는 답답한 듯 수진의 어깨를 때린다.

수진모

내가 진작에 연락드리라고 했어, 안 했어?

해궁할매, 가지고 온 짐을 다시 핸드백에 챙긴다.



해궁할매            병의곳을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돼.  
수진모            이름?

수진모, 수진을 바라본다.

수진모            떠오르는 사람 있어?

‘떠오르는..?’ 수진, 고개를 가로짓는다.

해궁할매            (다시 코트를 입으며) 없기는... 예쁘장한 게 남자 많이  
                              울렸을 것 같은데... 천천히 생각해봐. 이름 없으면 못해.

해궁할매, 떠날 채비를 마치면, 핸드백에서 부적 세 개를 꺼낸다.

해궁할매            (수진에게) 방에 두 개, 거실에 한 개.

어안이 병병한 수진이 녀을 놓고 있자, 수진모가 대신해서 부적을 받는다.

수진모            (수진에게 건네며) 방에 두 개.  
해궁할매            거실에 한 개. 안 보이게 숨겨놔.

해궁할매, 신발을 신다 말고 현수의 정수리 부근을 바라본다.

핸드백 안에 손을 넣는 해궁할매, 잡곡을 한 움큼 쥐어 현수의 머리 위로 있는 힘껏 던진다. 놀라 기겁하는 현수, 몸을 웅크려 피한다.

해궁할매            (현수의 정수리 부근을 보며) 그쪽도 슬슬 떠날 준비해.  
                              곧 데리러 갈 거야.

해궁할매와 수진모, 현관문을 닫고 나간다. 고요해지는 거실.  
현수와 수진은 서로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다.  
곧 어이없다는 듯 웃는 현수. 수진도 덩달아 미소를 띠지만,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 S#51. 집 - 거실 - 밤

아기침대에 누워 있는 하윤. 수진은 그런 하윤을 뵈히 바라본다.

수진, 곧 아기침대 속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손가락으로 집으면...  
팔 한 알이다.

CUT TO:

부엌 탁상에 앉는 수진. 탁상에는 현수의 “렘수면행동장애” 공부 자료가 쌓여있다.  
쓸 수 있는 종이를 찾는 수진, 현수의 책 안에 수진이 떼어버린 A4 용지,  
“렘수면행동장애, 뿌리를 뽑자!”를 발견한다.

수진, 볼펜을 집어, 종이 뒷면에 뭔가를 적기 시작한다: “오현수, ”유창재.”  
기억을 되짚 듯 펜으로 탁상을 두드리는 수진, 생각이 났는지 다음 이름을 끄적인다.  
그렇게 이름을 적어 나가면, 남자 이름으로 구성된 기다란 목록이 완성된다.

CUT TO:

현수가 하운을 목록시키는 동안, 수진은 커피 테이블 앞에 앉아 목록에 적힌 첫 번째  
이름(“유창재”)을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본다.  
“유창재”의 계정에 접속하면, 사진이 한가득이다. 늙은 전남친의 모습이 낯선 수진.

수진, 목록에서 “유창재”의 이름을 지운다. 다음 이름은 “김창연”이다.  
인스타그램으로 “김창연”을 검색해보는 수진.

## S#52. 집 - 침실 - 밤

침낭 속에 누워 있는 현수, 자고 있는지, 졸린 건지, 눈을 감고 있다. 수진은 현수를  
침낭째 안고, 다리 하나를 그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팔알을 관찰 중인 수진.

수진	오빠.
현수	너무 졸려.
수진	만약에... 아니다.
현수	(졸리다) 얘기해줘.
수진	얘기해줘?

현수, 고개를 끄덕인다.

수진	놀리지 마, 그럼.
현수	안 놀리겠습니다.

수진, 현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수진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맞는 말이면...  
현수                      맞는 말이면?

수진, 머뭇거리다가...

수진                      정말 귀신이...면...

잠시 정적. 눈을 뜨는 현수, 수진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현수의 입꼬리가 올라가면, 수진도 무안한 듯 웃는다.

수진                      아니, 그냥 가정 상황! 가정해보는 거야. “정말 귀신이다,”  
                                 이렇게...  
현수                      정말 귀신이다. (해궁할매 목소리로) “남자 둘을 데리고 사네?”

빵 터지는 수진, 손바닥으로 침낭을 때린다.

수진                      아 쯤, 들어봐. 정말 귀신이 붙었어.  
현수                      붙었어.  
수진                      응. 그게 누굴 것 같아?

현수, 다시 올라가려는 입꼬리를 간신히 내린다.

현수                      글썸...

그리고 애써 진지하게 생각해본다.

현수                      그 왜... 나 전에 만났던 사람 누구였지?

현수의 대답을 고려해보는 수진.

수진                      아냐, 전부 살아있어. 내가 찾아봤어.

잠시 정적. 현수, 다시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현수                      찾아봤어?

수진, 민망하다는 듯 미소를 짓는다. 현수, 수진을 뺨히 바라보다가...  
곧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며 수진을 놀린다.

현수                    이거 가정 상황 아닌데!?  
수진                    아냐! 한 번 봤어 그냥. 심심해서.

현수가 계속 놀리는 표정을 짓자, 수진은 현수의 침낭에서 떨어진다.

수진                    됐어. 자.

침대 스탠드를 끄는 수진. 현수, 침낭째 수진에게 다가가지만,  
수진은 현수를 매몰차게 밀쳐낸다.

두 사람, 그렇게 말없이 누워 있는데... 곧 아래층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린다.

수진                    이게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두 사람, 강아지 후추 생각이 나는지, 아무 말이 없다.

현수                    우리한테도 엄청 뭐라 했잖아. 밑에 층 할아버지.  
수진                    나한테 엄청 뭐라 했지! 오빠 나가고 없을 때... (노인 목소리로)  
“개새끼 한 마리 조용히 못 시키냐! 잠 좀 자자!” 이렇게...

현수, 예상치도 못한 성대모사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웃음이 터진다.

현수                    (노인 목소리로) “그거 발정 난 거 그거 풀어줘야 돼!”

수진, 질색하듯, 고개를 가로젓는다.

현수                    널 좋아했지.  
수진                    너무 좋아했어!  
현수                    어디서 뭐 하고 지내시려나... (...) 만수무강하세요,  
할아버지.

수진, 피식 웃는다.

하지만 순간 뭔가를 깨달은 듯, 웃음기가 사라진다.

### S#53. 아랫집 - 거실 - 낮

아랫집은 수진의 집 구조와 동일하지만, 더욱 모던하게 리모델링됐다. 강아지 앤드류, 거실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앤드류, 벌떡 일어나 현관문 앞으로 달려간다.

민정                      네에!

민정, 현관문을 열면, 수진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서 있다.

민정                      어머, 안녕하세요!  
수진                      (웃으며) 계셨구나, 다행이다.

상자를 건네주는 수진.

민정                      이게 뭐예요?  
수진                      별건 아니고, 강아지 간식이에요. 집에 조금 남아서...  
민정                      와, “너무 별 건데!” 너무 좋아요.

집 상태를 쓰윽 훑는 민정,

민정                      잠깐 들어 오실래요? 커피라도 한 잔?

민정, 상자를 부엌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민정                      (소파를 가리킨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수진, 소파에 앉아 발 밑 앤드류를 쓰다듬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천장을 바라보면, 누군가가 긴 세월 동안 천장을 세게 때린 듯, 사방에 함몰 자국과 구멍이 보인다. 이를 멍하니 바라보는 수진.

민정                      (달힌 방 문을 향해) 진혁, 손님한테 인사 드려야지.  
                            (수진에게) 커피?  
수진                      괜찮아요.  
민정                      최진혁! (수진에게) 물?  
수진                      (웃음) 네, 그럼 물.

수진에게 물 잔을 건네는 민정, 텔레비전을 끈 후 수진 옆에 앉는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곧 방문이 열리면, 헤드폰을 끼고 있는 아들 진혁이 나온다. 수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올린다. 노트북을 들고 있는 진혁, 화면에 집중한 채 수진에게 꾸벅 인사를 한다.

민정                      앤드류 데리고 들어가.

진혁, 한 손으로 앤드류를 들어 올려 방 안으로 들어간다. 방문이 닫히면 다시 조용해지는 거실. 다소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데...

수진                      그...

민정                      (반가운 듯) 네네.

수진                      이사 오시기 전에, 여기에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수진, 막상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른다. 적당한 표현을 생각하는 것 같다.

수진                      (드디어) ...혹시 아시나요?

민망한 듯 웃는 수진. 민정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민정                      그건 왜요?

수진                      모르시겠죠?

민정, 본인의 유리잔을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민정                      아뇨, 우리 아빠데... (웃음)

수진, 놀라서 대답을 못한다.

문득, 거실장에 세워둔 가족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사진 속에는 민정, 진혁, 그리고 순한 인상의 할아버지가 활짝 웃고 있다.

수진에게는 익숙한 얼굴, 아래층 할아버지다.

민정                      (천장을 바라보며) 좀 힘들게 굴었죠? (웃음)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수진                      네? 아, 아뇨 아뇨.

정신을 차리는 수진, 뒤늦게 고개를 끄덕인다.

수진                      그랬구나.  
민정                      (미소) 네.

수진, 잔을 만지작거린다.

수진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혼잣말로) 이걸 어떻게 말로...  
                                그러니까... 아버님, 살아 있나요?  
민정                      네?  
수진                      (아차싫어) 건강하신가요? 건강히 잘 살아 계신가요?  
민정                      아아. (웃음)  
진혁(OS)                할아버지 죽었는데.

어느새 거실로 나온 진혁, 화장실을 가리키며,

진혁                      저기서.

진혁,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민정                      최진혁!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민정, 애써 미소를 짓지만,

수진은 화장실 문을 뚫히 바라볼 뿐이다.

수진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 S#54. 집 - 거실 - 밤

부엌 탁상에는 꼬리곰탕 재료가 놓여 있다. 한 손으로 아기를 안은 현수, 다른 손으로는 꼬리 반골을 물에 담근다.

수진, 커피 테이블에 앉아 현수를 바라보고 있다. 손에는 (전남친 목록이 적힌) 종잇조각을 쥐고 있다. 모든 이름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목록 끝에는 이름 하나가 추가됐다: “박춘기.”

#### S#55. 침실 - 밤

침낭 속에서 곤히 잠든 현수. 잠시 후,

**달그락 달그락.**

자물쇠를 푸는 소리가 들린다. 침실 문이 열리면, 수진이 들어온다. 잠든 현수 앞에 말없이 서 있는 수진.

수진                    (속삭인다) 오빠.  
현수                    응.

잠시 후,

수진                    (속삭인다) 오빠.  
현수                    응.

수진, 현수를 바라본다.

수진                    할아버지.

현수, 한동안 대답을 안 하다가,

현수                    왜.

잠시 정적.

수진                    할아버지... 맞아요?

수진, 현수의 얼굴을 관찰한다.

수진                    여기서 뭐 해요?

현수, 수진에게 등을 돌려 눕는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수진.

수진                    내 딸, 죽일 거예요?

현수, 대답이 없자.

수진                    (더 큰 목소리로) 내 딸, 죽일 거예요?

현수, 한숨을 길게 내쉰다.



현수 (속삭이듯) 몰라.

온 몸이 얼어붙는 수진.

#### S#56. 거실 - 밤

어두운 거실. 부엌 탁상에 앉은 수진, 아기 침대를 손으로 짚고 있다.  
앞에는 부엌칼이 놓여 있다. 손톱으로 칼날을 두드리는 수진.

#### S#57. 집 - 침실 - 낮

어느새 아침이다. 눈을 뜨는 현수, 침낭 안에서 기지개를 켜다가 침대 밖으로 떨어진다.  
정신을 차리면, 침대 밑에 뭔가를 발견한다. 침대 아래로 고개를 집어넣는 현수.  
침대 밑 프레임에는 널찍한 부적이 붙여져 있다.

#### S#58. 거실 - 낮

침실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현수. 곧 자물쇠 푸는 소리가 들린다. 문을 열면,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수진!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새빨갳다. 수진, 현수의 얼굴과  
정수리 부근을 유심히 살피는데... 곧 옅은 미소를 띤다. 현수는 그녀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어색하게 웃는다.

현수, 갑자기 생각난 듯, 손에 든 부적을 보여주자,

수진 (버럭) 그걸 왜 떼!?

수진의 찌렁찌렁한 목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현수. 수진은 현수의 손에서 부적을  
뺏어간다. 부적을 탁상에 펼쳐놓은 후, 구김 자국을 열심히 펴주는 수진,  
뒤늦게 현수의 시선을 의식하면, 하던 일을 멈춘다.

수진 (무안한 듯) 아니, 어제 하도 엄마가- (...) 그냥 붙여 봤어.

다시 부적을 펴기 시작하는 수진. 현수는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수진 (부적을 펴며) 근데... 어제 이거 붙이고, 여기 앉아서 쭈욱  
지켜봤는데... 오빠 한 번도 안 깼어.

'음?' 의아한 표정을 짓는 현수.

현수 쪽 지켜봤어..? 안 자고?

대답을 못하는 수진. 현수, 경악한 표정을 짓는다.

현수 정수진!!!

수진, 태연한 척 부적을 손본다. 황당해하는 현수는 웃음이 나온다.

현수 얼른 들어가서 자!

현수를 무시하는 수진. 현수, 그런 수진을 뺨히 바라보다가...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침실로 데리고 간다.

수진 (비명 같은 웃음) 알았어 알았어!

#### S#59. 침실 - 낮

수진을 침대에 떨어뜨리는 현수.

현수 (무리한 듯 허리를 움켜쥐며) 아유, 힘들다...

일어나려는 수진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현수. 수진은 졌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마에 뽀뽀를 하고 침실 밖으로 나서는 현수,

할 말이 있는 듯 뒤돌아보지만, 수진은 어느새 잠들어버렸다.  
침실 문을 닫는 현수.

#### S#60. 집 - 침실 - 밤 (비)

수진, 낮잠에서 깨면, 밖은 이미 어둡다! 화들짝 놀라는 수진, 몸을 벌떡 일으킨다.  
고개를 돌리면, 현수가 침낭 속에서 자고 있다. 수진, 현수를 흔들어 깨워보려고 한다.

수진

오빠.

깨지 않는 현수. 수진, 현수의 침낭을 손바닥으로 때린다.

수진

오빠! 하윤이는?

#### S#61. 거실 - 이어서 (비)

서둘러 거실로 나오는 수진, 하윤을 찾는다. 거실 구석에 있는 아기침대에 다가가면...

하윤은 없다! 아기침대 속에는 딱 찬 쓰레기봉투와 찌그러진 맥주 캔들만 쌓여 있다!  
숨이 멎는 수진, 주위를 둘러보지만, 하윤은 보이지 않는다.

#### S#62. 집 밖 (아파트 단지) - 밤 (비)

수진, 집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다. 쓰레기장에 도착하는 수진, 쓰레기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아니나 다를까,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수진, 쓰레기 수거함에 귀를 갖다 대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린다.  
온몸이 얼어붙는 수진, 쓰레기통 덮개를 열어본다. 일반 쓰레기로 가득 차있다.  
허겁지겁 쓰레기 봉투를 수거함 밖으로 꺼내면...

쓰레기봉투 사이로 튀어나온 아기 손이 보인다!

#### S#63. 집 - 침실 - 낮

눈을 뜨는 수진, 햇살이 얼굴 위로 떨어진다. 꿈이었다.

수진, 땀들일 틈도 없이 몸을 일으킨다.

#### S#64. 거실 - 이어서

서둘러 거실로 나오는 수진, 아기침대를 확인한다.

이번에도 하운이 없다! 혼란스러워하는 수진, 가쁜 숨을 몰아쉰다.

수진                      하운아...

수진, 냉장고, 냉동고 문을 정신없이 열어보지만, 하운은 보이지 않는다.

이때, 어디선가 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가 들린다. 가스레인지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수진, 숨이 멎는다.

불 위에는 커다란 들통이 놓여 있다. 수진, 천천히 뚜껑을 열어보면...  
들통을 가득 채운 국이 펄펄 끓고 있다. 얼굴이 사색이 되는 수진, 어쩔 줄 모르다가...

들통을 바닥에 엎어버린다. 바닥에 쏟아지는 꼬리곰탕. 수진, 뜨거운 국물을 밟으며  
꼬리 반골을 일일이 손으로 집고 확인한다. 손과 발에 화상을 입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때, 화장실 문이 열리면, 하운을 안은 현수가 나온다. 수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꼬리 반골 건더기를 살핀다. 현수, 지금 무슨 광경을 보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다가... 바닥에 쏟아진 꼬리곰탕을 발견한다.

현수                      (기겁하며) 쏟아졌어?

그제야 현수를 발견하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수진, 광기 어린 눈으로 현수를 바라본다.  
현수는 하운을 아기침대에 눕힌 후, 사고 현장으로 서두른다.

현수                      그냥 뒤, 내가 치울게!

영문을 모르는 현수는 가스 불을 끄고 행주를 물에 적시는데... 곧 수진의 손을 보며,

현수                      손! 손 왜 그래!?

현수, 행주를 떨어뜨리고 수진의 두 손을 붙잡는다. 수진, 두 손을 펴면, 쥐고 있던  
꼬리 반골들이 떨어진다. 양 손바닥에 커다란 화상 상처가 드러난다. 기겁하는 현수,  
싱크대에 차가운 물을 틀어놓고, 흐르는 물 아래 수진의 손을 댄다. 현수, 냉동고에서  
얼음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퍽!**

현수, 그대로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진다.

바닥에 널브러진 현수를 내려다보는 수진, 한 손에는 들통을 들고 있다.

### S#65. 거실 - 낮

현수, 천천히 눈을 뜨면... 수진이 자신의 몸통 위에 앉아 있다. 현수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된 듯, 수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손발이 묶인 채 부엌 바닥에 누워 있는 현수. 고개를 들어보려고 하지만,

목이 날카로운 무언가에 닿는다. 수진이 쥐고 있는 부엌칼이다. 숨이 멎는 현수, 재빨리 고개를 떨어뜨린다.

현수                      (목소리가 떨린다) 수진아...

수진은 현수를 뻘뻘 바라본다.

수진                      원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현수                      (침착하게) 수진아, 칼. 칼 내려놔.

수진                      한번 따먹고 싶어서 그래요?

수진, 부엌칼을 쥔 채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셔츠를 찢어 벗는다.

수진                      먹어. 먹고 떨어지면 되잖아.

현수의 목에서 피가 나기 시작한다. 눈을 질끈 감는 현수.

수진                      말을 해, 그러니까. (폭발한다) 이딴 식으로 괴롭히지 말고!!!

현수,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하다.

현수                      수진아,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어. 처방 바뀌준대. 이미크로펴.  
그때 얘기한 약 있잖아.

현수, 눈가에 눈물이 떨어진다.

현수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수진, 그런 현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쉰다. 칼을 치우는 수진, 현수의 몸에서 일어난다. 그제야 현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울기 시작한다.

페이드 아웃.

## 제 3 장

## S#66. 수면 클리닉(병원) - 수면다원검사실 - 낮 (두 달 후)

간호사가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면, 잠에서 깨는 현수. 환자복을 입었다. 얼굴과 머리에 각종 센서가 부착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현수. (관객한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현수가 다시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것이다.) 그새 시간이 많이 흐른 듯, 현수에게는 덥수룩한 수염이 생겼고, 목에는 열은 칼자국 흉터가 남아 있다.

의사(VO)                      여기 뇌파 기록을 보시면...

## S#67. 상담실 - 낮

현수, 의사와 상담을 받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현수의 “수면다원검사 기록”이 띄워져 있다. 의사는 예전 검사 기록도 같이 띄워놓은 후, 두 뇌파를 비교한다.

의사                      예전엔 이런 부분에서 변칙적이었는데... 이제는 정상화됐어요.  
주무시면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죠?

현수                      네. 처방을 바꾼 이후로는 한 번도...

현수, 만지작거리던 약통을 책상에 올려놓는다. “*이미크로뎀*”이라고 적혀있다.

의사                      이 정도면 완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현수.

의사                      (미소를 띠며) 고생 많으셨어요.

현수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히 저희 때문에...

의사, 필요 이상으로 크게 웃는다.

의사                      (이마를 만지며) 아내분은 잘 지내시고요?

잠시 정적.

현수                      잠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의사                      아이고... 별일 아니죠?

현수                      네, 이제 다 나아서 오늘 퇴원합니다.

의사                      걱정되셔서 다시 한 번 내원하셨구나...



현수, 미소를 짓는다.

의사                      안심하셔도 좋아요.

S#68. 차량 - 이동 중 (산 속 도로) - 낮

숲 속 도로를 지나는 현수의 차량. 서울을 한참 벗어난 듯하다.

S#69. 차량 - 이동 중 (산 속 도로) - 낮

운전 중인 현수, 수염을 깔끔하게 면도했다. 조수석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고, 하운과 수진모는 뒷좌석에 앉아있다.

S#70. 마음의 숲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주차장 - 낮

병원 건물 앞에 주차하는 현수, 차에서 내린다. 건물 간판은 "마음의 숲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고 쓰여 있다.

S#71. 안내 데스크 - 낮

안내 데스크 앞. 꽃다발을 들고 있는 현수.  
하지만 직원들은 모니터 앞에서 헤매는 듯하다.

후배 직원              (모니터를 보며) 정수진 환자... 어제 점호 때는 체크돼  
있는데...

선배 직원              (통화 중) B 동 찾아봤대? (...) 다시 한 번 보라 그래.

전화를 끊는 선배 직원, 현수를 보며 애써 미소를 짓는다.  
멍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는 현수.

S#72. 차량 - 이동 중 (산 속 도로) - 낮

말 없이 운전하는 현수. 수진모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으로 넘어간다.

### S#73. 수진모의 집 앞 - 밤

어느새 밤이다. 하운을 안은 수진모와 인사를 나누는 현수, 차를 타고 떠난다.

### S#74. 집 밖 (아파트 단지) - 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한 현수,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다.

### S#75. 복도 계단 - 밤

꽃다발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현수.

아랫집 현관문이 열려 있다. 현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

곧 문틈 사이로 (아래층 이웃) 진혁과 눈이 마주친다. 진혁, 문밖 현수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계단을 올라가는 현수, 미소를 띠며 손을 들어 올리지만, 진혁은 그저 멀뚱하게 서 있을 뿐이다. 이를 의아하게 여기는 현수,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

아랫집 천장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들어 올리는 진혁.  
현수, 덩달아 본인의 집 쪽을 올려다본다.

### S#76. 집 - 거실 - 밤

도어락 소리가 들린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현수.

거실의 모든 벽이 노란 부적으로 촘촘하게 도배돼 있다! 온몸이 경직되는 현수.

거실에 들어와 집을 둘러보는데...

곧 화장실 문이 열린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수진이 걸어 나온다.

단발 머리를 한 수진, 현수를 보고 긴장 섞인 미소를 짓는다.

수진

왔어?

수진, 본인도 거실 꼴이 민망한지 현수의 눈치를 살핀다. 그런 수진을 멍하게 쳐다보는

현수는 이 모든 것이 초현실적이다.

수진, 곧 커피 테이블에 놓인 노트북을 건들면, 거실 벽에 빔프로젝터 화면이 켜진다.  
소파를 가리키는 수진.

수진                      오빠, 잠깐만 앉아 봐.

현수, 그제야 입이 떨어진다.

현수                      뭐야 이게?

수진                      (민망한 듯 웃는다) 당황스럽지? 일단 앉아 봐.

현수가 반응하지 않자, 수진은 그의 팔을 붙잡는다. 꽃다발을 발견하고,

수진                      웬 꽃?

꽃을 옆에 내려놓고 현수를 소파 쪽으로 끌고 간다.

수진                      (끌고 가며) 5 분만.

수진, 현수를 겨우 앉힌다. 일단 첫 단추는 꿰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수진.

수진                      내 말 좀 들어봐.

빔프로젝터 화면 앞에 서는 수진, 목을 가다듬는다. 준비한 멘트를 시작하려는 듯  
입을 떼는데...

현수                      (말을 끊는다) 수진아, 나 다 나았어.

수진                      알았어. 근데 잠깐만 들어봐.

수진, 다시 한 번 입을 떼려고 하지만...

현수                      (다시 말을 끊는다) 나 오늘 병원에서 뭐랬는 지 알아?

그 뇌파 검사하는 거 있잖아. 아무 이상도 없대.

수진                      아유, 쯔-옴!

말문이 막힌 현수.

현수                      아니, 이제 다 끝났다니까? 뭘 들으라는 거야?

수진 (발끈) 내가 얘기해주려고 하잖아, 지금!  
현수 뭘 얘기해? 귀신 붙었다고? 귀신이 붙었다고?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수진.

현수 (지겹다는 듯) 수진아아! 왜 그래, 진짜아!?

수진, 본인도 살짝 민망한 듯 웃지만...

수진 근데 귀신 별거 아냐. 사람이 죽으면 열흘 안에  
"천도"를 해야 한대잖아. 못하면 귀신 되는 거야.

현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폭발하는 수진!

수진 들어보라고!!!

현수, 급 꼬리를 내린다.

현수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알았어 알았어.

다시 자리에 앉는다.

수진, 리셋하듯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PPT 슬라이드쇼를 시작한다.  
첫 슬라이드는 "10 월 25 일"이라고 쓰여 있다.

수진 몇 달 전에 아랫집에서 찾아왔잖아? 시끄럽다고, 일주일 내내  
쿵쾅거린다고. 그게 10 월 25 일. 그게 10 월 25 일이었으니까...

수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 "10 월 25 일 - 7 일 = 10 월 18 일"

수진 (각 날짜를 손바닥으로 가리키며) 오빠는 25 일 마이너스 일주일,  
그러니까 10 월 18 일부터... (걷는 동작을 취하며) 그랬다는 거  
아냐, 그치? (현수가 대답을 안 하자) 10 월 18 일, 그치? 근데 봐.

수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 누군가의 사망증명서 사본이 보인다.  
성함은 "박춘기," 사망일 "10 월 08 일"에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다.

수진                   (손바닥으로 “사망일”을 내리치며) 밑에 층 할아버지가 죽은  
날이 10 월 8 일이야.

수진, 현수의 반응을 살핀다. 충격을 받은 듯한 현수,

현수                   저거 어디서 났어?

수진은 포인트를 놓친 현수가 답답하다.

수진                   (흥분하며) 열흘 안에 천도를 못하면 귀신이 된다고!  
할아버지가 죽은 날, 10 월 8 일 플러스 열흘! 10 월 18 일!  
오빠가 처음 그러기 시작한 날이! (급 목소리를 깔며)  
할아버지가 귀신이 된 날이야.

수진, 다시 한 번 현수의 반응을 기다린다. 현수, 수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곧 어이가 없다는 듯 마른 세수를 한다.

현수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잠시 정적이 흐른다.

수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 **"누가 들어왔어."**  
소파등받이에 머리를 누히는 현수.

수진                   10 월 25 일, 오빠는 "누가 들어왔어"라고 말했어.

현수, 답답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현수                   아니 그건 드라마 대사라고 저번에-  
수진                   드라마는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오빠는 "누가 들어왔어!"

현수는 수진의 억지(?)에 할 말을 잃는다.

현수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 이거야?  
수진                   그랬다 이거야!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수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온몸이 손톱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보인다.

수진                   귀찮한 사람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가려워져서  
얼굴이랑 몸을 전부- (굵는 시늉을 한다) 응? 굵어도

가려움이 안 없어지거든.

현수가 반문하려는 기색이 보이자,

수진                      그리고! 귀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지 알아? 기력을 되찾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수진, 슬라이드를 넘기면, 생고기, 생선 등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보인다.

현수, 보기 싫은 듯 눈을 피한다.

수진                      오빠는 완전 교과서대로 움직이고 있어. 봐! 그렇게 기력을 되찾은 귀신은 무엇을 하냐! 원한을 갚기 시작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원한을 품었겠어?

현수가 대답하지 못하자, 수진은 발로 바닥을 있는 힘껏 **쿵!쿵!** 내리친다.

수진                      (쿵!쿵!) 이거 아니야,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강아지 후추의 사진이 대문짝만 하게 보인다. 다시 한 번 화면을 **팡!팡!** 내리치는 수진.

수진                      (더 크게)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건 오빠가 더 잘 알 거 아냐!

천장을 바라보는 현수, 그만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현수                      알았어. 그만해.

수진                      이제 좀 납득이 돼?

현수가 대답하지 않자,

수진                      응? 말해봐. 내 말 믿어? 아님 다시 정신 병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

수진은 현수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눈치다. 어쩔 수 없이 입을 떼는 현수.

현수                      나는...

뒤늦게 소파에 앉는 현수. 단어 선택을 고심하는 듯하다.

현수                   (조심스럽게) 내가 믿든 안 믿든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난 다 나았거든. 너의 말대로라면, "귀신은... 떠났어."  
그러니까... 이제 끝난 문제야.

현수, 할 말을 제대로 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수진의 눈치를 살핀다.

현수를 뵈히 바라보는 수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 해궁할매가 굿을 하는 사진이다.  
자세히 보면 수진의 집 거실이다. 수진모, 해궁할매와 악사들로 둘러싸인 굿판 한가운데  
현수가 나체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좁은 거실에서 화려하게 펼쳐진 굿.

충격을 받은 현수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킨다. 사진에서 눈을 못 떼는 현수, 자신이 뭘  
보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한다.

현수                   뭐야 이게?  
수진                   49 재. 죽은 지 49 일째 되는 날.

아무 답이 안되는 듯, 현수는 그저 사진을 바라볼 뿐이다.

수진                   오빠 잘 때.  
현수                   미쳤어...

현수, 어이가 없는 나머지, 웃음이 터진다.

현수                   (웃음) 정수진! 정말 미쳤어! 제대로 미쳐버렸어!

웃음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보는 현수, 다시 한 번 웃음을 터뜨린다.

현수                   (뭔가를 깨달은 듯) 잠깐! (사진을 가리키며) 굿! 굿 했네?  
굿 했잖아! 그럼 됐네! 된 거 아냐?

수진, 굿 사진을 보며,

수진                   천도를 거부해, 할아버지가. 아직 여길 안 떠나고 있어.

잠시 정적.

현수                   아니야, 아니야. 거부 안 했어. 떠났어.

현수, 수진의 손을 꽉 잡는다.

현수                      약 때문이든, 곳 때문이든, 나 정말 다 나았어.

난데없이 수진 앞에 무릎을 꿇는 현수.

현수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그랬고, 한 달 넘게 아무 일도 없었어!

수진이 반응이 없자,

현수                      나 진짜 다 나았다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제발 좀 믿어줘!!

수진, 현수의 머리를 쓸어 넘긴다. 잠시 후, 사진을 가리키는 수진, 그녀의 손가락은 사진 속 현수의 등을 가리킨다. 현수의 등에는 글씨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다. 부적 글씨를 천천히 따라가는 수진의 손가락.

수진                      몸에 진귀방부를 새기면 50 일 동안 귀절을 못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현수,

현수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현수, 곧 빔프로젝터 화면으로 고개를 돌린다. 수진이 가리키는 곳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사진 속 자신의 등에 큼직하게 새겨진 부적이 눈에 들어온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현수, 외투를 벗고 셔츠를 들어 올린다. 현수, 고개를 뒤로 돌려, 현관에 걸려 있는 거울을 바라본다.

현수의 등에는 여전히 큼직한 부적 글씨가 새겨져 있다! 현수, 손가락에 침을 묻혀 글씨를 문지르지만, 전혀 지워지지 않는다.

수진                      그게 우리 딸을 지켰어. 근데 어제까지야. 어제가 새긴 지 딱 50 일 되는 날이었으니까, 오늘 오빠한테 다시 붙였을 거야.

잠시 정적. 입이 벌어진 채 수진을 바라보는 현수, 느닷없이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두드린다. 뭔가를 찾는 듯, 불을 켜고 거실을 두리번거리는 현수, 소파를 정신없이 뒤지기 시작한다. 곧 침실 문을 열고 침실 안으로 사라지면,



수진 (현수에게 다가가) 들었어? 어제까지라고!  
현수(OS) (정신이 팔린 듯) 잠깐만...

현수, 침실 문을 닫아버린다. 수진은 문 너머 현수에게 외친다.

수진 내 말 잘 들어. 죽은 지 100 일 넘은 귀신은 천도를 못해.  
영원히 이승에 남아야 한다고! 그럼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나랑만 단둘이 살고 싶대잖아! “개 짖는 소리 없이,  
아기 울음소리 없이!” (악을 쓰며) 하운이를 죽일 거라고!!!

수진, 문 너머 현수의 반응을 기다리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수진 (악을 쓰며) 오늘이 죽은 지 100 일째 되는 날이야! 오늘 안  
쫓아내 버리면- (목이 메인다)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이때, 현수가 침실 문을 연다. 거실로 걸어 나오는 현수, 계속 뭔가를 찾는 듯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댄다. 곧 벗어 던졌던 외투를 집어 주머니를 확인하면, 핸드폰, 지갑,  
차 열쇠가 나온다.

현수 아, 여기 있었구나.

현수에게 다가가는 수진.

수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겠어?  
현수 나 잠시... 못하겠어.

현관문 쪽으로 멀어지는 현수, 허겁지겁 신발을 신는데...

## 과당!

알 수 없는 물건이 현수의 머리를 스쳐 현관문 거울을 강타한다! 현수,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본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수진. 현수, 수진이 무엇을 던졌는지 확인한다.  
나무 팻말이다.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 할 문제는 없다”라고 쓰여 있다.

수진 맨날 도망가기만 할 거면, 저런 말은 도대체 왜 한 거야?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극복하는 게 부부라며!?  
현수 (억울한 듯) 아니-  
수진 (말을 끊는다) 결혼하자고 했을 때, 애 가지자고 했을 때, 매번

준비 안 됐다고, 못하겠다고! 자면서 난리 치기 시작했을 땐  
따로 자자고, 따로 살자고 하고! 귀신 붙었다니까 비웃기밖에  
더했어!? 굿 얘기 꺼내자마자 정신 병원으로 보내버렸잖아!!  
아니야!? 그거까지는 다 참았어.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하윤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악을 쓰며)  
니 딸이 죽는단 말이야, 이 병신아!!! 그런데, 뭐? 못하겠다고?  
나가겠다고? 야. 힘들어질 때마다 나 혼자 두고 가버릴 거면,  
(팻말을 가리키며) 저런 건 왜 만들고, 벽에는 또 왜 걸어놔!!??

광기 어린 눈으로 씩씩거리는 수진. 현수는 그런 수진을 빤히 바라본다.

긴 정적이 흐르면... 표정이 누그러지는 현수. 팻말을 집어 들어 벽에 다시 걸어 놓는다.  
현수, 작심한 듯 소파에 자리를 잡는다. 팔받침대를 붙잡고 한숨을 길게 내뿜는 현수,  
수진을 바라보며 억지로나마 미소를 짓는다.

현수                      뭐 하면 되는데?

병찐 수진, 곧 눈가가 축축해진다.

곧 벽시계를 바라보는데... 밤 11 시 45 분이다.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수진은 눈가를 닦고 곧바로 "임무 모드"로 돌입한다.

거실 등을 끄는 수진, 커피 테이블 위에 앉아 현수를 마주 본다.  
정확히는 그의 정수리 부근을 바라보고 있다.

수진                      내 말 잘 들어요.

현수가 끄덕이자, 수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현수의 귀에 속삭인다.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현수.

현수, 머뭇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무안한 듯 미소를 짓는 현수, 수진의 눈치를  
살피며 부엌 방향으로 한 보씩 걷는다. 냉장고 앞에 멈추는 현수, 수진을 바라보며  
냉동고를 가리킨다.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는 수진, 고개를 끄덕인다.

현수, 냉동고 문을 열어보면...

표정이 굳는다. 입이 점점 벌어지는 현수.

냉동고 안에는 강아지가 얼어 죽어 있다! 후추와 생김새가 똑같다. 현수, 두려움에 찬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면, 수진은 눈을 질끈 감고 있다.

다시 냉동고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현수, 강아지를 냉동고에서 꺼내야 할지 망설인다.  
끝내 강아지의 목줄을 살피면, "앤드류"라고 적혀있다. 현수, 황급히 냉동고 문을 닫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수진                      이제 쌤쌤이야.

수진은 여전히 괴로운 듯, 안절부절못하다가,

수진                      (되려 성을 내며) 뭐!? 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나도 갈 데까지 갈 수 있어!!

현수는 느닷없이 헛구역질한다. 손으로 입을 막고 화장실로 서두르는 현수.

화장실 문을 열면, 손발이 테이프로 묶인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다! 입도 테이프로  
감겨있는 여성, 아래층 이웃 민정이다! 화들짝 놀라 엉덩방아를 찢는 현수,  
바닥을 짚으며 뒤로 물러나는데...

수진에게 가로막힌다. 전동 드릴을 쥐고 있는 수진의 손! 현수는 위잉 돌아가는  
드릴을 피해 뒤로 물러난다. 등이 거실 벽에 닿자, 그제야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

수진, 민정을 붙잡고 화장실에서 끌고 나온다. 실수로 민정의 머리를 문틀에 찢는 수진,  
깜짝 놀라며 민정을 살피지만, (캐릭터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는지) 금세 관둔다.

손발이 묶인 민정을 커피 테이블 앞으로 끌고 오는 수진,  
현수에게 민정의 얼굴을 보여준다. 한쪽 눈이 멍들어 부어있는 민정.

수진                      (현수에게) 이래도 안 갈 거야?

공포에 온몸이 마비된 현수, 수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수진, 민정의 입에 감긴 테이프를 찢아! 벗기면,

민정                      (비명) 진혁아!! 진혁아, 어딴어!?? (현수에게) 살려주세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화들짝 놀란 현수, 민정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이에 민정에게 전동 드릴을 겨누는 수진.

민정                      잠깐잠깐!!

멈칫하는 현수.

민정                      알았어요, 할게!

거친 호흡을 가다듬는 민정, 곧 현수를 바라본다. 민정, 한참 머뭇거리다가...

민정                      (어색하게) 아빠... 살려줘요.

당황하는 현수.

민정                      제발 그냥 가. 안 그럼 내가 죽어. 내가 죽고, 진혁이가 죽고,  
앤드류는- (갑자기 울컥하며) 앤드류는 이미 죽은 것 같고-  
이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제발 그냥 가!!!

달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민정.

민정                      우리 옆에 있어줄 필요 없어. 안 지켜줘도 돼. 내가 자주 놀러  
갈게요, 진혁이 데리고. 제사 꼬박꼬박 지낼게, 아빠.

민정, 수진의 눈치를 살피면, 수진은 민정의 입을 다시 틀어막는다. 눈물을 흘리는 민정.  
현수는 그런 민정을 바라보며 말을 잊지 못한다.

수진, 전동 드릴을 현수 방향으로 겨눈다.

수진                      (현수에게) 내 말 잘 들어요.

하지만 현수는 민정한테 정신이 팔려 있다. 수진, 드릴을 커피 테이블에 탕!탕!  
내리치자, 그제야 수진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현수.

수진                      하운이 내 딸... 조금이라도 다치면- 그게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길 가다 넘어지거나... 감기에만 걸려도...

수진, 전동 드릴을 민정의 관자놀이에 댄다. 민정, 테이프 너머로 비명을 지른다.

수진                      니 딸, (아래층을 가리키며) 니 손자까지! 다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수진, 다시 현수에게 전동 드릴을 겨누며,

수진                      그러니까 대답해.

현수, 입을 떼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현수                      (입 모양으로) "뭐?"

잠시 정적. 수진, 전동 드릴의 방아쇠(?)를 당긴다! 눈을 질끈 감는 현수.  
비명을 지르는 민정. 하지만 드릴은 조금 돌다가, 배터리가 없는지 금방 멈춘다.  
드릴을 탁!탁! 때려보는 수진,

곧 몸을 일으켜 부엌에서 충전선과 멀티탭을 챙겨 온다. 충전선을 꽂은 수진,  
(기어서 도망가려던) 민정의 머리에 다시 한 번 드릴을 겨눈다.

수진                      (현수에게) 대답- (비명) 이래도 안 갈 거냐고!!!???

공포에 온몸이 마비된 현수.

울화통이 터지는 수진, 벽시계를 바라보면... 11시 55분이다! 당황한 수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한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주위를 둘러본다.

여전히 어안이 병병할 따름인 현수.

수진은 그런 현수의 표정을 뻘뻘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스위치를 당긴다! 맹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하는 전동 드릴,  
민정의 관자놀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간다! 수진은 고개를 돌리고 눈을 질끈 감는다.

기겁하는 현수, 하지 말라는 듯 손을 뻗는다.  
힘겹게 입을 떼보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울상을 짓는 수진. 이를 악 물으면, 머뭇거리던 전동 드릴이 민정의 머리에 점점 다가간다.

현수                      (입 모양으로) “갈게.”

괴로운 신음을 내는 수진. 드릴이 드디어 민정의 머리에 접촉한다!

이를 바라본 현수는 온 힘을 다해 숨을 들이쉰다.

수진의 얼굴 위로 희미한 핏방울이 튀기기 시작하면,

현수(OS)                    (고함) 갈게!!!

수진, 동작을 멈춘다. 수진과 현수, 서로 말없이 바라보는데...

**광광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경비원(OS)                경비실입니다!

수진, 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기습적으로 수진의 전동 드릴을 붙잡는 현수! 현수, 수진 위에 올라타 그녀의 손에서 드릴을 뺏는다! 드릴을 멀리 던져버리는 현수.

**광광광!**

현수, 수진의 두 팔을 붙잡고 거칠게 숨을 고른다.

현수                        왜 그러는 거야...

울컥하는 현수.

현수                        (버럭)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수진, 현수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현수를 뻘뻘 바라보며...

수진                        오빠?

수진, 불안한 눈으로 현수를 유심히 바라본다.

수진                        오빠였어?

그런 수진을 바라보는 현수,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 긴 정적이 흐르고...

현수                        알았어.

수진의 두 팔을 놔주는 현수, 한숨을 길게 내쉰다.

현수                      알겠다고 이 미친년아, 가면 되잖아.

수진, 뒷목의 솜털이 선다.

**광광광!**

경비원(OS)            문 좀 열어주세요!

경비원도 수진도 무시하는 현수, 오히려 민정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현수                      민정아.

아직 정신이 혼미한 민정, 현수를 올려다본다.

현수                      민정아, 아빠 간다. 진혁이 데리고 잘 살고...  
세상엔 또라이들 많다. 웬만하면 이사 가.

현수, 민정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올린다.

다시 수진에게 고개를 돌리는 현수,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몸을 일으키고 먼지를 털어낸다. 거실을 쓰윽 둘러보는 현수,  
수진과 현수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본다.

현수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현수, 천장을 올려다본다.

현수                      갑시다.

현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진.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인다. 수진의 눈동자 속에 보이는 할아버지, 현관문 쪽으로 걸어간다. 현관문을 열면... 거실 안으로 새하얀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숨이 멎는 수진, 엄청난 빛이 그녀의 눈동자를 밝힌다.

현관문이 닫히면, 집은 다시 어두워진다.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수진.

현수는 여전히 수진에게 등을 돌린 채, 제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하다. 잠시 후,

털썩.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는 현수,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다.

수진, 정신을 차리고 현수를 살피러 오면... 천천히 눈을 뜨는 현수.

현수                      갔다.

현수를 뵈히 바라보는 수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  
곧 벽시계를 바라보면... 밤 11 시 58 분이다.

눈물 섞인 웃음을 내뿜는 수진,

피로가 쏟아지는지, 곧 본인도 털썩 주저앉는다.  
현수 옆에 눕는 수진. 그의 팔을 베고, 천천히 눈을 감는다.

## 광광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린다.

경비원(OS)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느새 잠든 수진.

수진                      (잠꼬대하며) 거봐...

현수, 부적으로 도배된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다. 고개를 들어 올리면,  
아래층 민정이 현관문을 향해 열심히 기어간다. 밖에서는 열쇠로 문을 열려는  
소리가 들린다.

생각도 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바닥에 떨구는 현수.

수진                      (잠꼬대하며) 다 극복할 수 있어.

고개를 끄덕이는 현수, 수진을 가볍게 토닥인다. 그렇게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는 두 사람.

곧 잔잔하고 희망적인 선율의 음악이 시작된다. 둘이 처한 상황과 대비되는 선율,



그리고 처음 보는 수진의 평온한 표정이 마치 해피 엔딩을 착각하게 만든다.

화면이 암전되면...

드르릉 드르릉. 검은 화면 위로 수진의 코골이가 들린다.

-끝-

### S#77. 사진관 - 낮 (에필로그 / 쿠키영상)

종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지면... 동네 사진관에서 나오는 수진, 강아지 후추도 데리고 나왔다. 수진, 사진관에서 맞춘 액자 사진을 바라본다. 수진과 현수가 후추와 찍은 결혼사진이다.

곧 현수도 짐을 한가득 들고 사진관에서 나온다. 현수가 들고 있는 커다란 나무 팻말이 유독 눈에 띈다. 수진이 결혼사진을 감상할 동안, 뒤에서 팻말을 감상하는 현수.

수진                      (사진을 보며) 후추 봐, 후추.

웃음이 나오는 수진, 뒤돌아보면... 그제야 현수가 들고 있는 팻말이 눈에 들어온다.

두 사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현수                      들어봐.

팻말을 낚아채려는 수진.

수진                      그거 사지 말라고 했지!?

현수                      가족은- (수진의 손을 피하며) 가족은 가훈이 있어야 돼!

금세 포기하는 수진, 현수를 쏘아보며,

수진                      갖다 놔.

수진, 현수를 두고 떠난다. 사진관 앞에 홀로 남은 현수, 팻말을 바라보며,

현수                      이미 새겼는데... (멀어진 수진에게) 뭐라고 썼는지 안 궁금해!?

수진(OS)              안 궁금해!

수진을 쫓아가는 현수. 화면 밖에서는 두 사람이 아웅다웅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카메라는 두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사진관에 머문다. 진열장에 걸린 수많은 가족사진을 담는 화면. 카메라가 서서히 진열장 쪽으로 가까워지면...

익숙한 사진이 보인다. 아래층 할아버지가 민정, 진혁과 촬영한 가족사진이다. 할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멈추는 화면. 할아버지는 정면을 바라보며 온화하게 웃는다.

눈동자가 수진 쪽을 바라본다는 착각이 들 때, 빠르게 암전되는 화면.